

# '90년도 국제동향과 '91년도 국내외 경제전망



김 병 일  
(경제기획원 동향분석과장)

## 1. 90년의 국내외 경제동향

'91년의 국내외 경제를 전망하기에 앞서 작년의 세계경제와 국내경제동향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가. 세계경제에 충격을 안겨준 페르샤만 사태

90년 세계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점령으로 야기된 소위 페르샤만사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페르샤만 사태는 국제유가를 2~3개월만에 거의두배 가까이 올려 놓았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석유수입국들은 석유수입금액 증가로 인한 국제수지 악화, 물가상승, 경제성장 둔화 등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출시장인 미국경제는 작년부터 하강국면에 들어가기 시작하였는데, 페르샤만 사태로 인하여 하강국면이 더욱 가속화 되었고 '90년 4/4분기부터는 제로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 나. 국내경제 9% 수준의 높은 경제성장 예상

'89년에 6.7%의 낮은 성장을 보였던 국내경제는 '90년들어 활발한 민간소비와 투자 등 내수 증가에 힘입어 9월까지 9.8%라는 높은 성장을 나타내었으며 연간 경제성장은 9% 수준으로 전망된다.

성장의 내용면에서도 '89년도 3.7%에 불과했던 제조업 성장이 '90년에는 8.2%로 2배 이상 늘어나고, '89년에 5.2%의 감소를 나타냈던 물

량기준 수출이 '90년에는 4.8% 증가로 예상되며, 설비투자도 '89년의 12.3% 증가에서 '90년에는 16.8%로 높아지는 등 경제구조가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민간소비가 여전히 10% 수준의 높은 증가를 나타내었고, 건설투자는 하반기에 다소 둔화되기는 했으나 연간 26%라는 높은 증가세를 나타냄으로써 시멘트 등 건축자재파동과 건설인력 부족으로 노임이 급상승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 다. 생산직 인력난이 심화되고 노사분규는 크게 감소

이처럼 높은 경제성장과 서비스 산업의 번창에 따라 제조업과 건설업의 생산직은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특히, 사람의 일손을 많이 필요로 하는 섬유나 신발, 전자 등의 업체에서는 수출주문을 받아 놓고도 사람을 못구해 생산하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하고, 건설기능공의 하루 임금이 5만원 이상으로 크게 올랐으며, 단순노무직도 하루 2~3만원씩 주어도 사람 구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농촌의 일손도 더욱 부족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생산직 인력난이 심화된데는 활발한 산업활동으로 경제성장이 높아진 데에도 원인이 있겠으나, 서비스 산업이 크게 번창하고 사회전반적으로 힘들고 굶은 일은 기피하고, 쉽고 편하게 돈벌려는 생각이 널리 퍼지게 됨에 따라, 서비스 분야로 인력이 많이 흡수된데에도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고학력 추세에 따라 대학 졸업자는 크게 늘어났는데, 이들의 일자리는 부족하여 고급실업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생산직 인력부족을 가져온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난 87년 6·29민주화선언이후 '89년까지의 극심한 노사분규는 '90년에 들어와 진정되기 시작하여 '90년도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89년의 1/5수준인 약 330건으로 추정된다.

#### 라. 물가상승률은 한자리수 유지, 부동산가격은 안정

지난 '82년 이후 안정되는 추세를 나타내었던 물가가 '90년에 들어와서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서 작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5%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90년도 물가가 과거에 비해 많이 오른 것은 쌀, 쇠고기,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가격이 크게 오른데에 가장 큰 원인이 있으며,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임대료 상승과 임금 상승으로 인한 음식값, 세탁비 등 개인서비스요금 상승, 전월세가격 상승, 학교등록금 등의 공공요금 인상도 물가상승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

또한 금년 4월까지의 부동산값과 전·월세가격이 크게 올라 집없는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켰으나,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시책과 주택건설촉진시책으로 5월이후 토지·주택 등 부동산가격이 안정되고, 하반기에는 전·월세가격이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마저 나타내었다.

#### 마. 국제 원유가격 급등으로 수입이 크게 증가.

'90년 4월부터 수출이 다소 회복되어 연간 수출액은 645억불로 '89년에 비해 3.4% 증가한 반면, 수입은 8월이후 국제 원유가격 급등에 따른 석유수입 추가부담액이 약 25억불 늘어나서 연간 수입액은 '89년보다 14% 증가한 700억불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20억불의 적자를 기록



하여 '86년부터 실현한 4년간의 흑자에서 다시 적자로 돌아서게 되었다. 그러나 페르샤만사태로 인한 국제 원유가격 상승만 없었더라면 '90년도도 소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나타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91년 국내외 경제전망

### 가. 대외여건은 유리한 면과 불리한 면이 동시에 작용

금년도 세계경제는 국제원유가격이 어떻게 되는냐에 따라 크게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페르샤만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경우 국제원유가격은 1배럴당 20~22달러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의 교착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배럴당 25~30불, 전쟁발발시 일시적으로 40~50불 수준까지 상승하다가 단기전으로 끝날 경우에는 25불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상

수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

어쨌든, '91년에는 유가가 과거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세계교역량 증가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의 수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단위: %)

구	분	1990	1991
선진국경제성장률		2.5	2.1
(미 국)		(1.1)	(1.0)
(일 본)		(5.1)	(4.0)
세계 교역량 증가율		7.1	5.9

자료: WEFA

그러나 우리나라와 소련 및 중국과의 관계개선과 경제·교류협력증진은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 엔화 가치가 계속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나라의 수출에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나. 국내여건은 어려움 예상

금년 상반기중 국내석유류가격 인상과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지방자치제 선거의 실시로 경제·사회적 안정분위기가 이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플레 기대심리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물가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물가상승과 지자체선거 등 제반 여건으로 보아 노사관계가 다시 악화되고 높은 임금인상을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또한 힘드고 굵은 일을 기피하려는 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생산직 인력난은 지속될 전망이다. 우르콕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될 경우 농업과 서비스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특히 농민들의 보상요구와 불만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다. 경제성장둔화·경상수지적자 확대 예상

금년에는 '90년의 성장을 주도했던 민간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둔화되어 연간 경제성장률은 작년의 9% 수준보다 낮은 7% 수준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90년이 제조업경쟁력 강화 노력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소련·중국 등 북방지역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에 비해 약 8% 늘어난 695억불 수준으로 전망된다. 반면 수입은 원유가격 상승에 따른 석유수입 부담증가 등에 따라 금년보다 약 9% 늘어난 765억불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금년보다 적자폭이 다소 늘어난 30억불 내외의 적자가 예상된다.

물가는 석유류가격 및 공공요금 인상요인의 현실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나 임금이 안정되고 소비절약 기풍이 확산될 경우 한자리수 이내의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가격은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 시책추진과 주택공급물량 확대에 따라 계속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월세가격도 작년의 다세대·다가구주택보급 확대 등으로 계속 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 3. 91년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

끝으로 「91년 경제운용계획」에 나타난 정부의 주요 정책추진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경제발전의 견인차역할을 담당하는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고, 산업인력과 공장용지를 원활히 공급하며,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둘째 물가안정을 위하여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노사관계와 임금안정을 유도하고, 국민소비생활의 합리화와 국내저축률 제고에 주력하면서 주요 생활필수품의 가격안정에 힘써 나간다.

셋째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외소득원(農外所得源)을 적극 개발함과 동시에, 농어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어민에 대한 복지시책도 강화해 나간다.

네째 도시교통난을 완화하고,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다섯째 우르콕이 라운드 협상 타결, EC통합 등 국제질서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제화에 부응하도록 국내체제를 정비해 나감과 아울러,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각종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